

# 파견예식 및 강복

일시	신앙캠프 파견 미사 중 또는 미사 후	소요시간 : 본당사정	장소	실내
대상	중,고등부		제작	청소년사목국
목적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수행하는 학생사도로서의 소명을 갖는다. 어렵고 힘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희망과 기쁨을 깨닫고 일상의 자리로 힘차게 돌아간다.			
준비물	캠프동안 촬영한 영상자료, 학생들이 기록한 개인편지, 신나는 성가곡(또는 MR), 기념품(가능한 성물)			

## 1. 프로그램 개요 및 운영

- 1) 캠프 일정 마지막 파견 미사 중에 하거나, 또는 미사 후에 파견 예식으로써 진행할 수 있다.
- 2) 짐 정리와 주변 정리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강당이나 혹은 야외에 모여서 한다.
- 3) 본 프로그램은 캠프를 모두 마친 후 학생들이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으로서, 용기와 희망을 가득 안고 기쁘게 돌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4) 프로그램 진행 시 특히 한 사람씩 이름을 호명할 때에는 신나고 활발한 분위기로 한다.

## 2. 프로그램 진행

### 1) 초대의 말 (교사멘트)

신앙캠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집, 학교, 학원, 성당...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시 가기 싫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를 마치면서 파견되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잠시 떠나온 그 자리로 파견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2) 캠프동안 학생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준다.
- 3) 동영상을 모두 보고 난 후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인간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미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또 실천하였습니다.  
이제 파견되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십시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행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밤에 쓰고 봉했던 이 봉투를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줍니다.  
이 봉투 속에는 여러분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어려움, 고통..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견합니다. 잠시 떠나왔던 그 현장으로 다시 여러분을 되돌려 보냅니다.  
여러분이 지난밤에 작성했던 고백의 편지 한 부분은 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찾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며, 예수님의 옷자락이 끊어지도록 잡아당기십시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두 팔 벌려서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파견되는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씩 호명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두려움과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고 힘차고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대답을 하며,  
씩씩하게 걸어 나옵니다(또는 일어납니다).

☞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장소와 사정에 따라서...

다른 학생들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친구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또는 아멘)**  
라는 기도로서 용기와 희망을 주도록 합니다.

- 4) 학생들의 이름을 교사가 부르고, 봉투는 신부님(또는 수녀님)이 전해준다.
- 5)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신나는 성가곡 MR을 틀어준다.
- 6) 가능하다면 이름을 부를 때 각 개인의 인물사진을 (캠프기간 동안 알게 모르게 찍힌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스크린으로 보여준다.
- 7)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의 분위기와 동기부여를 위해서 고등부 임원들이나, 미리 준비된 학생들을 호명한다.
- 8) 시간이 너무 지연되면 학생들이 앉아 있는 순서대로 편지봉투를 미리 준비해 놓은 후 신부님(또는 수녀님)이 학생들 앞으로 이동하면서 나누어 줄 수도 있다.
- 9) 본당의 사정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기념물(성물)을 함께 나누어 주면 좋겠다.
- 10) 모든 학생에게 편지를 나누어주고 나면 주제가(또는 다른 성가)를 다 함께 부르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 11) 본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진지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작하지만,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파견하는 시간에는 되도록... 신나는 분위기를 만든다. 세상을 향해 신나고 힘차게 달려가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한다.**